

2.10(수) 긴급 간부회의시, 금융위원장 당부사항

- 2.10일 금융위원장(위원장 : 임종룡)은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사항과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와 관련하여 당부사항을 전달하였음
-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하여
 - 구정연휴 중 글로벌 증시는 유가 하락 반전, 유럽계 은행 실적악화 전망, 엔화 강세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
 - 국내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발생하여 내일 증시 등 금융시장 개장을 앞두고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음
- 금융당국은 증시 등 앞으로의 금융상황에 대해 긴장감과 경계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,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
 - 특히 유럽, 일본, 중국, 미국 등 주요국의 금융상황이 우리 증시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
 - 투자자들도 現 상황에 대해 지나친 불안감을 갖기 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

□ 우리가 9.11 테러, 글로벌 금융위기 등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극복해 오면서 그동안 축적된 비상대응계획 등 메뉴얼을 보유하고 있지만

- 앞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
-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, 중시 수요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등 비상대응계획을 보완해야 할 것임
-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

□ 또한, 2.10(수) '개성공단 전면 중단'에 따라 관련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

- 우선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유예·만기 연장 조치를 통해 관련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

- 금리·수수료 우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것

- 또한,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·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긴급 안정자금지원 등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

- 관련 기업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
개별 기업별로 주채권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
1:1 방식의 금융 컨설팅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
- 이를 위해 5개 정책금융기관(산은, 기은, 수은, 신보, 기보)에는
2.11(목)부터 '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'을 구성하고
- 정부합동대책반(국무조정실 주관)과 연계하여
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강구할 것